

## 공연을 위한 준비작업에 배려하는 해외국가들

-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왕치선 음악평론가

culture | art

윤이상, 진은숙 같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나오기까지 그들이 독일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 명의 작곡가가 탄생하기까지 그에 대한 지원 형태는 작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공연예술은 그 완성품이 보여지는 순간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인 준비작업을 필요로 한다. 음악이라는 시간예술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더 준비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Performance' 나 'Production' 즉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예술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Preparation' 즉 예술인과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나 공연을 위한 준비작업에 대한 배려를 통한 내실화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보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외국의 예를 고찰하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시초

유구한 역사 동안 왕족과 귀족들의 후견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던 유럽에서는 이들이 음악가 개인과 단체들을 소유하고 자신의 성에 머무르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 국가나 부유한 평민들에 의해 지원자 그룹이 바뀌었을 뿐 계속되었다. 이러한 전통과 함께 17세기경에 프랑스에서 French Academy가 Rome Award 수상자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Villa Medicis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Artist-In-Residence Program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1930년에 Black Mountain College에서 예술가들의 트레이닝센터를 열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전 미국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Artist-In-Residence Program의 시작이었다. 195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층 정비되고 정돈되어서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활동을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창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 미국

미국에서는 다각도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적인(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지원은 물론이지만 특기할 점은 많은 부분의 지원을 국가가 담당하는 독일 에 비해 학교나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나 혹은 재단의 기금, 개인 기부를 통한 지원이 두드러진다. 연주자나 연주단체의 '공연'은 물론 작곡가에게 '창작환경을 제공'하거나 '여행경비'와 '악기 운반비용', 더 나아가 공연홀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기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 대학, 현악 4중주단을 상주단체로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지 않은 미국 대학들은 현악 4중주단을 상주단체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로 하여금 학교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자신들이 속한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을 대표하는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의 경우 1946년부터 뉴욕의 줄리아드 음악원의 상주 현악 4중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멤버 전원이 교수진에 포함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1962년부터는 미 국회도서관의 상주 현악 4중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의 콜리지 홀에서 지금까지 음악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은 보답으로 이들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기를 빌려주고 또한 자신들의 건물 내에 있는 콜리지 홀을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줄리아드 4중주를 통해 에머슨 현악 4중주, 도쿄 현악 4중주, 콩코드 현악 4중주, 아메리칸 현악 4중주, 뉴 월드 현악 4중주, 라크 현악 4중주 등이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졌다. 한 단체의 존속과 성장이 미국 내의 실내악 음악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에머슨 콰르텟'이 상주단체로 있는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이들보다 훨씬 큰 단체인 Chamber Music Society 앙상블은 링컨센터의 상주단체로서 공연과 리허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링컨센터 내에 있는 Alice Tully Hall은 홀의 기획단체에서부터 다양한 인원 편성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챔버 앙상블 공연을 위한 최적의 컨디션을 얻고자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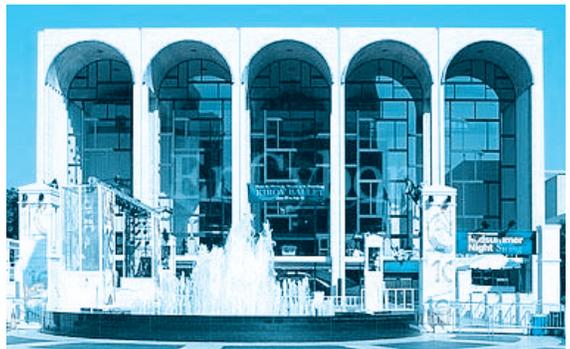
### 음악전문 재단 지원

Chamber Music America는 1977년에 챔버 앙상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미국 내에서 챔버 음악단체들을 지원하고 챔버 음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의 기금은 주로 연주자들의 Residency Program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음악회는 물론 Workshop, Coaching Class, Master Class 강연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대적 문화 취약 지역에서 공연의 1/3을 소화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Meet the Composer는 작곡가들을 위한 재단인데 연주단체들의 창작곡의 연주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단체와 JP Morgan Chase가 함께 시행하는 JP Morgan Chase Regrant Program for small Chamber Ensemble 기금은 연간 예산이 30만 달러 미만인 전문 음악단체나 음악 제공자들의 일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장르별 제한이 없어서 창작이든 프로덕션이든 음악 프로그램의 수행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다.

American Symphony Orchestral League와 Meet the Composer가 함께하는 Music Alive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서 작곡가로 하여금 짧게는 2~8주 동안, 길게는 1년



미국 링컨센터

이제는 우리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음악단체를 입주시키고 이들이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연주단체들도 스스로 나아가 도서관, 병원, 그리고 학교에 등지를 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Fictive Art

에서 3년 동안 상주하면서 전문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습과 공연 과정을 함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만 이 기금을 통해 30개가 넘는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30곡이 넘는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게 된다.

### 작곡가에 대한 지원

작곡가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작품 연주와 작품 위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생산에 좀더 밀접하게 개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지원 중 하나가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Artist-In Residence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 국립공원 중 29개의 국립공원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 경치 좋고 작품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장소를 국립공원 내에 마련하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작곡가, 문인, 화가 등)이 집중적으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작가들은 그대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생산된 작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머무르는 동안 그곳의 방문자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한다.

### 독일

국가적인 지원체제가 잘 이루어진 나라로 꼽히는 독일은 음악적 환경이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 그 예로 인구 60만 명 정도의 도시인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오페라 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페라 극

장에는 공연에 필요한 스태프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무용단원 등을 포함 약 5천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KBS 급의 오케스트라 3개가 또한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현대음악제의 경우 7일간 이뤄지는 공연에 매일 여섯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고 각 작곡가에게 최소 3백만 원 정도의 위촉료를 지불하는 등 그 지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체제가 잘 이루어진 독일에서 1990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작된 Academia Schloss Solitude 프로그램은 기존의 지원제도들과 차별화된 제도로 꼽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면서 창작활동에 주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신의 작품 분야 창작에 몰두할 수 있음은 물론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혹은 서로 다른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한곳에 머무르면서 타 장르와의 예술적 교류를 가능케 한다. 이곳에서 작가들은 그들의 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중심을 이루는 광장 솔로스플라츠

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 있고 지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즉시 그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들의 창작활동에 대단한 투자라 할 수 있겠다.

이곳에는 건축, 시각예술, Performing Art(무대 디자인, 디렉팅, 드라마 터기, Playwriting, dance, acting, musical theater, performance), 디자인, 문학(이론/비평/에세이, 시, 소설, 번역), 음악(Sound installation, sound and Music Composition, Sound and Music Performance), Video Film new Media(Video Installation)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입주할 하는데 이들은 거주에 필요한 아파트와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 그리고 스투드가르트까지 오고가는 교통비를 지원받고, 지정된 기간의 2/3기간 동안에는 꼭 스투드가르트에 거주하여야 한다.

## 일본

일본의 예술에 대한 지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히 국제교류와 자국 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Artist in Resident Program(AIR)이 일반적인 지원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혹은 국제적인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1990년 초에 시작되었는데 지방정부로 그 사업이 이관되면서 각 지방정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공연이나 제작보다는 예술가에게 창조와 리서치를 위한 시간을 주는 데 있다. 그들이 다른 환경이나 문화권에서 창작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예술적 창작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극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AIR의 중요한 철학이 되었고 이점이 작품 공연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여타의 Residence-Program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AIR프로그램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완전히 새로운 표현 방법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기존의 박물관이나 극장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이는 Kuestlehaus

Bethanien을 모델로 한다. 1960년대 베를린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파괴운동(anti-establishment movement)에서 유래하는 Kuestlehaus Bethanien은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개혁하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을 가능하게 해줄 공간을 찾던 데서 유래한다.

AIR프로그램에 지방정부들이 참여한 결과 이들이 각 지역 AIR프로그램의 기획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들 프로그램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예술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되었는데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들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가지고 공헌을 하고 교류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우리의 현황과 과제

우리의 지원정책은 그동안 'Production' 과 'Presentation'에 많이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예술가의 창작과 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타 분야 예술이나 타 문화권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연습장소 확보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많은 연주단체들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그들이 속한 학교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에 줄리아드 현악 4중주,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에머슨 콰르텟이, 링컨센터에 Chamber Music Society가 상주단체로 있으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쪽에 양질의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임 오케스트라와 유라시안이 이러한 장소 지원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체인데 이제는 우리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음악단체를 입주시키고 이들이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연주단체들도 스스로 나아가 도서관, 병원, 그리고 학교에 등지를 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② 공연홀 개선과 확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공연홀들이 있다. 그러나 통영음악제로 유명한 통영문화회관의 경우처럼 지방에 있는 홀들은 그 구조나 음향 효과면에서 세심하게 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건물

려되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서울의 경우도 많은 수의 연주자들이 교통, 서비스 그리고 지명도를 문제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의전당의 경우 특별한 날에 음악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10 : 1 이상의 경쟁을 치르기도 한다.

부족한 공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공연공간의 설립과 기존의 음악홀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체들이 소유한 홀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코엑스 빌딩 내의 공연공간이나 KTF 건물 내의 홀, 한국전력 본사 건물 내의 홀들은 음향효과나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뛰어난 접근성과 기업 참여를 유발해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 ③ 지원정책의 다변화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들의 자생능력 창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연습실이나 공연홀을 싼값에 제공하거나 연주단체들이 연습하고, 공연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경비를 지원하고 연주단체들은 이러한 기반 위에 각각의 공연을 위한 경비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충당하게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여러 나라에서 예술가들의 자기 충전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악인들의 질적 향상과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기금의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미국의 크로노스 콰르텟의 경우는 San Francisco Hotel Taxi Fund에서 그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American Symphony

Orchestral League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체들의 이동시에 약기의 운반을 지원하고 있다. 또 Japan Foundation은 Tokyo String Quartet이 '도쿄' 라는 이름을 쓰는 대가로 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악기를 임대해 주고, 독일의 '디름슈타트 페스티벌' 에 지원을 함으로써 일본 음악가들의 유럽 진출을 돕고 있다. 우리도 우리 연주자나 작곡가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④ 개인과 기업체의 참여 유도

문예진흥이 음악단체나 국가단체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기업체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콘서트홀에 가면 의자마다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표현처럼 "의자를 샀다"고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연주홀에 기부하면 그의 이름을 의자에 붙여 기부자의 이름을 기리는 것이다. 또한 방의 이름으로, 로비나 홀의 이름으로, 광장의 이름으로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일반인에게도 좋은 본으로 남을 수 있는 기부문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 예로 링컨센터의 Alice Tully Hall은 Alice Tully 라는 기부자를 기려 홀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 ⑤ 작곡가의 작업공간과 환경조성

우리나라의 작곡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생활을 위해 주당 수십 시간의 수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작품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진 작곡가들도 작품 위촉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작품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그러나 윤이상, 진은숙 같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나오기까지 그들이 독일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 명의 작곡가가 탄생하기까지 그에 대한 지원의 형태는 작품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그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